

▶ 전북도의회 5분 자유 발언

# “국민·공공임대주택에 외제차량 넘쳐”

지난 9일 전북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5분자유 발언에서 의원들은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조속추진, 전북도 돌발병해충 대응, 위(Wee)센터 교육감 해결, 새만금 집중 투자 등을 촉구했다.

이날 5분 발언은 최진호(전주6), 이호근(고창1), 김현철(진안), 송성환(전주3), 김종철(전주7), 최인정(군산3) 의원이 나섰다.

▲**최진호 의원** = 새만금 활성화 발판 마련을 위해서는 제대로된 교통체계 구축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최진호 의원

최 의원은 “88고속도로 이후 동서를 잇는 유일한 고속도로로는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다. 특히 무주-대구 구간의 경우 수차례 건의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는 커녕 국가계획에도 미반영됐다”면서 “전북도는 위기의식을 갖고 대구-무주 구간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호근 의원**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경제적 약자인 서민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근 의원

이 의원은 “장애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불법사용이 여전히 만연해 있어 사회적

**최진호**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무주-대구 구간 조속 추진해야”

**이호근** “장애인·서민 권리 침해를 막아야”

**김현철** “여름 돌발병해충 급격히 퍼져... 도가 나서라”

**송성환** “교육감은 위(WEE)센터 구성원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김종철** “새만금 신항만 조기개발되면 개발비용 절감될 것”

**최인정** “군산 서해대학의 도립대학 전환 검토를”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를 몰아다니다 최소 6,000만원에서 1억원이 훌쩍 넘는 외제차량이 곳곳에서 주차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부 입주자의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소득과 자산정보를 토대로 입주자를 선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송성환 의원

▲**김현철 의원** = 전북도의 시농민 내는 돌발 병해충 방제행정을 비난했다.



김현철 의원

김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돌발 병해충 방제 노력을 촉구했음에도 개선된 게 없어 올해 여름 돌발병해충이 급격히 퍼지면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일반 주민들의 생활불편까지 불러왔다”면서 “도내 14개 시군의 만행인 도가 책임감을 갖고 방제에 신경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송성환 의원** = 전북교육감은 전북교육청 소속 위(WEE)센터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위센터는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학교 폭력 등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개소됐다. 하지만 전문상담사 자격기준, 급여와 근무조건 등이 열악하다. 특히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순환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타당행정”이라며 “교육감은 조직의 존립과 역할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의원** = 새만금 신항만 사업의 선택 집중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2020년 6,80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3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한다.

다. 특히 조기개발되면 내부종합개발에 필요한 건설물자와 산업물자를 항만을 통해 조달할 수 있어 개발비용도 절감될 것이다”며 “전북도는 개발예산확보와 항만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 봐야하고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종철 의원

▲**최인정 의원** = 군산 서해대학의 도립대학 전환 검토를 촉구했다.



최인정 의원

최 의원은 “서해대학은 부채가 많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아예도문을 달 상황에 직면했다. 이는 이사장의 법인재산과 교비 140억원 횡령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일시적 신입생 모집 어려움을 겪었다. 퇴출될 경우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클 것”이라며 “전북도는 위기에 놓인 대학을 바라만 볼 게 아니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타 시도에서 국공립전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 실정에 맞는 도립대학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도립대학 설립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립대학 설립 TF팀 구성을 제안한다”며 전북도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신광명 기자

## 정운천 ‘찾아가는 의정보고대회’

오늘·내일, 전통시장 방문·귀경객에 인사

국회 정운천(새누리당, 전주) 의원은 추석명절을 맞아 ‘찾아가는 의정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정 의원은 12~13일 이틀 동안 전주 서부시장, 서신시장 등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청취한 이후 현장에서 의정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정운천 의원

또한 서전주IC 등에서 전주를 찾는 귀경객들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인사를 펼친다. 특히 국회 등원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탄소산업 육성, 새만금개발 본격화, 전북 국가예산 확보 현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발전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탄소산업 육성과 새만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국회단체에서 예산 증액 노력을 통해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2017년 정부예산(기획재정부 증액) 520억, 지역사업 예산 34억, 추경 예산 17억, 특별교부세 22억 등 총 576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광명 기자

## 국민의당 도당, 오늘 전주 신중앙시장 방문

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광수)은 12일 추석을 앞두고 전주 신중앙시장을 방문해 성수품을 구매하며 고객들과 인사들로부터 서민경제 활성화와 애로,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는 김광수 도당 위원장과 시·도의원 등 전주지역 당직자 6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매한 장보기 물품은 호성 보육원 등을 방문, 격려하고 원생들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김광수 전북도당위원장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인근 대형마트에 밀려 자영업체가 점차 위축되고 있지만 값싸고 질 좋은 지역농산물이 가득한 전통시장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적극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광명 기자

## 최영일 도의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지난 9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의 이번 건의안은 1974년 도입된 누진제가 현재 징벌적 과세로 변해있는 만큼 하루 속히 개편해야 하는 당위성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여름철 폭염 때 에어컨을 사용하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서민들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전기요금 누진제의 4단계에 해당하는 월 300kWh 이상 전력사용가구 비중은 지난 1998년 5.8%인 것이 2015년에는 29.5%로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징벌적인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총리 및 각 부처 장관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신광명 기자

## 김관영,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의혹 진상규명 촉구

김관영(국민의당, 전북 군산) 국회의원이 지난 9일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의혹은 지난 4월 처음 제기됐다.

구체적인 의혹으로는 시설 종사자의 거주 생활인에 대한 폭행 및 폭언, 시급 1000원 미만의 부당한 강제 노동, 금품갈취 등이다.

김관영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숨진 사람은 150여명에 달하고, 시설 내 생활인의 의인사(外因死)를 희망원에서 단순병사로 처리한 의혹마저 일고 있다.

김관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7월 21일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8월에 2번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김관영 의원은 “2016년 형제복지원 사태에 경각을 금치 못한다”면서 “노숙인, 장애인, 성추행 피해자를 돌봐야 할 희망원이 절망원, 나라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30년 넘게 형제복지원 사태를 해결 못한 사이 또다시 최악의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역 없는 조사와 국회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 기자



현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난 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양용모 도의원의 새만금 삼섬MOU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 “새만금 복합리조트·SOC 사업에 역량 결집해야”

김제시 이건설 시장·김관영 의원 ‘새만금 사업·새만금복합 리조트 사업 설명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 9일 김제시청에서 시민과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건설 김제시장과 김관영 국회의원(군산) 공동으로 “새만금 사업 및 새만금복합 리조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김제시 관할결정(15.10.26)을 시작으로 지적 등록 완료와 해안선 10.5km 확보 등 새만금 중심도시로서의 그간 성과를 홍보하고 김제류 찾기 1주년을 맞아, 시민과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새만금 사업 및 새만금복합리조트 조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였다.

새만금사업 동영상 상영, 이건설 김제시장의 새만금 사업 설명, 김관영 국회의원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건설 김제시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김제시민의 열정과 땀으로 이뤄낸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시 관할결정”이 의결된 지 1년 가까이 지난 오늘, 김제의 바닷길이 다시 열리고 새만금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된 의미를 되새기고 동서2축도로, 마리나항, 농업용지 조성 등 새만금국가 사업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 김관영 국회의원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개정안 취지와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컨벤션센터·호텔·쇼핑·레저·관광, 카지노 등의 새만금 복합리조트

조성을 통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새만금을 통해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론 결집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였고, 복합리조트 등 MICE산업은 국제협력역지 등 새만금 내부개발을 선도할 핵심 지역이 가장 좋은 입지임을 피력하면서 새만금개발 촉진을 위해 새만금 복합리조트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공감하고 향후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귀중한 자리였다는 반응이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안호영, 무진장완주 공무원 처우개선 간담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진)은 지난주에 완주·진안·무주·장수 군 공무원 노조 대표 및 임원들과 공무원법 등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완주군 등 4개 군 공무원 노조는 주요 사안인 공무원법·생활임금법 제정안과 노동조합 사무실 지원 등 3개 사항의 개선을 촉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명칭을 정식 직제로 부여할 관련 근거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노조는 신분, 고용, 처우 등에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지위를 보장해 노동자로서 자긍심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과 4개군 공무원 노조는 간담회에서 공무원의 정식 직제를 부여하기 위해 공무원법과 생활임금법 등 입법 발의와 각 군 기간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쟁점 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안 의원은 “공무직제 법안 발의와 각 지자체의 생활임금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앞으로 공무원 노조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치우 공무원지회장(무주군)은 “안호영 의원이 서민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며 앞으로 4개군 공무원 근로자의 복지·후생·고용 안정 등을 위해 노조와 함께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며 오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각 군 공무원 근로자(무기계약직)는 조합원이 약 320명이며, 공무원의 열악한 복지·후생·고용 안정 등 근무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